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16, 예레미야 11-20, 고백, 3부, 하나님 백성의 비애 와 예레미야

© 2024 Gary Yates 및 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가르치는 Dr. Gary Yates입니다. 16회기, 예레미야서 11-20장, 예레미야의 고백, 3부, 하나님 백성의 비애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예레미야서 11장부터 20장까지 흩어지고 퍼져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백서를 살펴본 첫 번째 섹션에서 우리는 고백서가 구약성경의 기도와 예배 전통 안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구약의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의로운 기도를 나타냅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단지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의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슬픔을 모두 반영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감정이 어떻게 서로 섞이는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선포할 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Andrew Sheed는 예레미야서의 신학에 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그의 책 A Mouthful of Fire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138페이지에서 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생애에서 그분의 메시지는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과 성품, 뜻, 마음 속 생각을 전달하시는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현존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 우리가 듣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행동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달하시는 하나의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시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해석하고 설명하십니다. 몇 페이지 뒤인 141페이지에서 Sheed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히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절로서 신성한 권고에 따라 그들에게 연설한다면 그의 메시지는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수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랑을 그치시지 않고, 예레미야의 고난을 통해 그들의 고난과 함께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유다가 열방 중 하나의 지위로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녀를 신부와 딸로 부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랑을 보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나도록 허용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고백 속에,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예언 사역 전체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의 일부인 개인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비추어 예레미야의 탄식과 고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과 고뇌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에 관한 만화를 보았는데, 한 여인이 교회 예배 중에 기도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모든 기도 문제를 당신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나에게 징징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아마도 징징거리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장했습니다. 아니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단지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민감한 사람일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 고통받는 자신의 깊은 상처와 백성들의 깊은 상처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재자 역할의 한 방향에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상처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보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몇 번의 세션 전에는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하게 분열된 관계나 결혼이 있는 어려운 상담 상황에 처해 있고 중재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면,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남편을 돕기 위해 하는 말은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돕기 위해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당신이 자기 편을 들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상담실에 있는 셈입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고통, 슬픔을 표현하면서 사역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임을 상기시켜 주는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역에는 종종 매우 어려운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렀으니(예레미야 1:5)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8절에 그 포함 의 끝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결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며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지도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신학교 졸업이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읽어 주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 우리 신학교 중 일부의 슬로건은 언젠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때때로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려움과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에서 사물을 보고, 경험하고,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은 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세가 이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합니다. 내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백성을 인도할 때 적어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각 종족별로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들었으므로 여호와와 진노가 맹렬히 타오르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먹을 것과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불쾌해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에게 악을 행하시나이까? 그런데 당신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시니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잉태한 걸까?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모가 젖 먹는 아이를 안고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듯 그들을 품에 안으라 하시려고 내가 그들을 낳았느냐? 주님, 지금 제가 책임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그리고 일어난 일은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골절이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씌우셨나요? 그리고 저는 모세의 이야기가 20장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물이 있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거나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상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은 때 중 하나입니다. 보라, 내가 모세를 대신하여 설 수 있을까? 모세는 여기서 아주 좋은 거래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투덜대고 불평하고 신음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참아내야 했고, 바위에 부딪혔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자신의 진노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에게 부적절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신 분이 자신임을 나타내기보다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좋은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사역의 어려움과 독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좋아요, 이제 당신은 모세가 단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고백할 때 모세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는 성벽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갖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서 나는 어쨌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당신은 아내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게 될 슬픔에 대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애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아내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러한 어려움을 다룰 때, 그것이 그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기만적인 시냇물과 같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속이고 저를 압도하셨고,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전파해야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태운 후 이세벨은 19장에서 자기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 달려 도망하여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이제 족하도다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정말로 그것을 원했다면 그곳에 머물면서 이세벨이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역의 어려움과 사역의 현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일을 겪고 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반역자로 몰리고, 거짓말쟁이라고 불리고, 납치되고, 예레미야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여겨졌느니라. 예레미야는 포로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상처, 엘리야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장에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제2의 모세라고 발전시켰습니다. 주님, 제1장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나는 내 말을 네 안에 두겠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말을 전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제2의 모세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그는 확실히 제2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그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세대와 함께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광야 4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땅 밖, 다시 애굽으로, 그곳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신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선택된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세대의 일부가 될 것처럼,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까지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사라진 후에 그럴 거예요. 그는 제2의 모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이러한 기도 뒤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서의 맥락에서 이 기도문을 살펴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그의 상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11장 18절. 여호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즉 너희가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본 줄을 내가 알았으나 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니라.

나는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그 열매를 없애자고 계락을 꾸몄습니다. 그를 산 자의 땅에서 끊어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자.

주님, 저는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내 일을 주께 맡겼사오니 주의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소서.

주님, 저는 당신이 의롭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21장 11절의 그의 고백을 통해 그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야, 당신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며, 여기서 좀 더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네 생명을 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도 당신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젊은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기근에 죽고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징벌하는 해에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주님, 저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억압받고 있다. 그들에 대한 당신의 복수를 보여 주소서.

그리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은 고향뿐 아니라 고향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주님은 그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읽는 책 12장 1절은 예레미야의 다음 애도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평할지라도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나는 주 앞에 내 사정을 변호하리이다.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하는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모두 번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것들을 심으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나는 알고 싶다.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첫 번째 애도 직후에 나오는 두 번째 애도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의미를 거의 전달한다고 제안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빨리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봐요,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걸 알아요. 지금 그것을 할.

여호와여,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거기 거하는 자의 악으로 말미암아 밭의 풀이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이 휩쓸려 가느니라. 보라, 그 땅의 악이 그 땅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보라. 하나님,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레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11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기 12장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기에 그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가 사람과 함께 걸어서 지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리고 네가 안전한 땅에서 그렇게 신뢰한다면, 요단강의 수풀에서는 무엇을 하겠느냐? 당신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당신과 함께 배반하고 살다가 당신을 따라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은 단순히 "예레미야야, 보라, 내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하는 대신에, 이해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것이고, 사람들을 돌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해합니까? 당신은 이 일을 통해 당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당신의 상황과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사역은 이 시점에서 남자들과 함께 걸어서 달려왔습니다.

당신은 말과 함께 경주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거의 책망의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는 내가 곤경에 빠졌고, 악인들은 악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바로 두 번째 탄식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충분히 빨리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잠깐만요, 예레미야.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애도인 15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가 18절에서 말할 구절입니다. 이 모든 애가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왜 내 고통이 그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고침 받기를 거절하오니 주께서는 나에게 속이는 시냇물 같으시며 끓어지는 물 같으시리이까 자, 우리는 시편 60편에 하나님을 향한 비탄의 언어가 있다는 몇 가지 교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옳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끔찍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선을 넘는데 얼마나 가까웠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기도를 표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레미야를 꾸짖으며 이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고 너희가 내 앞에 서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귀중한 것을 말하고 무가치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 입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말지니라 그 장이나 그 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선지자가 그에게 올 수 있느니라.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평할 수 있다. 그는 논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책망의 말은 슈브(shub) 라는 말인데, 그 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책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말한 단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슈브 해야합니다. 당신은 반환해야합니다. 회개해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슈브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슈브를 돌려준다면 나는 슈브의 원인 형태를 복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레미야를 보면 괜찮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가 속이는 시냇물이었다는 이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영적인 삶에서 이 자리에 머문다면, 내가 당신에게 부여한 소명에 대한 관점에서 이 자리에 머문다면, 당신은 나의 메신저로 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로서 내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주저 하고 돌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불렀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shuv 라는 단어가 이 구절의 끝부분에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그는 언제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당신에게로 돌아오겠지만 당신은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중재적인 일에서 당신은 단순히 사람들의 편으로 가서 그들 편에 서서 나를 빈 시냇물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역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늦 성벽 같게 하고 견고한 늦 성벽 같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 것이나 나는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1장에서 예레미야를 위해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바라는 것은

애도와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깨어진 관계,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언약적 흐트러짐이나 격변으로 인해 곧 깨어질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시대에.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15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애가인 11장 18절부터 23절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아나돗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12장에서 예레미야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당신은 남자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당신은 말과 함께 달리려고 합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책망이자 약속인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입니다.

예레미야, 당신은 나에게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는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배달할 예정이다.

21절, 이 애가를 마치면 내가 너희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며 포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보세요,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18장과 20장, 또는 17장, 18장, 20장에 있는 기도예 올 때, 뭔가 빠진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먼저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나도 낫겠나이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언약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구하고 있으며,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오게 해주세요.

그들은 도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떨어지게 놔두세요.

나는 너희 목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병의 날을 바라지도 아니하였노라.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는 당신도 알잖아요. 그것은 당신의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공포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재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말게 하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을 임하게 하소서. 이중 파괴로 그들을 파괴하십시오.

그는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한 부분에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찬양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부분에서,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부르심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 때문에 당신은 제게 두려움이십니다. 자, 여기에 17장의 고백이 이전의 세 고백과 다르게 만드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르러 재앙의 날을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저희를 멸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백성의 문에 서라. 자, 이제 또 다른 설교를 할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직접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 애도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대적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야 하겠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을 하여 그들을 당신의 진노에서 돌이키게 하였는지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밀쳐내고, 그들이 진노에서 돌이켜 그들에게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자녀를 기근에 넘겨주며 칼의 세력에 넘기며 자기 아내는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리로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향하여 꾀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를 없애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무너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분노의 때에 그들을 다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17장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직접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1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토기장이의 항아리를 사라 나는 당신이 설교할 또 다른 설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20장 7절부터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시니 나도 속았나이다. 당신은 나보다 강하고 승리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조롱합니다. 그것은 부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통의 근원이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설교를 그만두기를 원하며, 그의 사역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11절에 이르러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무서운 용사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리라.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불명예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뜻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로 그들에게 주의 보복하심을 보게 하소서. 나는 당신에게 내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앞에서 나가는 용사입니다. 당신은 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서운 전사로서 당신과 함께 나가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시니 공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알아두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찬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는 궁핍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으로다. 그리고 우리는 홀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가 드디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백의 끝인 이 위대한 찬양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4절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날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좋아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13절, 14절,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라. 와우, 우리는 바로 애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말입니다. 나는 왜 자궁에서 나왔을까? 수고와 슬픔을 보시고 내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20장에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읽을 내용은 2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가서 또 다른 설교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의 애가 중 세 번, 또는 다섯 번의 애가 중 마지막 세 번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내 기도가 천장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레미야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올바른 직업적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속이는 시냇물 같아서 나를 압도하셔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도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전적으로.

39장과 40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고 바벨론 사람들이 성읍으로 들어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1장, 12장, 14장, 15장, 17장, 18장, 20장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장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장과 39장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고발이 있을 것이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추방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적의 포위 공격에 대한 공포,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성전에 서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를 죽이려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을 것이고, 그의 두루마리, 그 모든 것들을 잘라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훌륭하고 실용적인 묵회 신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백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고 있지만, 또한 그는 개인으로서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모든 불공평함과 불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또한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예레미야는 인간이다.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으로서 포위와 포로의 상황을 겪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것. 이 일의 결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 시대의 유다 백성을 생각하며, 그들이 받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벳을 세우고, 바알들을 좇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죄에 직면했을 때 얼굴이 붉어질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생생한 비극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멸망. 그리고 비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슬퍼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통함을 보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 애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레미야는 4장부터 6장까지 그 땅의 침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는 아침에 애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가 포로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처녀 딸인데, 곧 아이를 낳게 되어 해산의 진통이 예루살렘 성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반역자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으나 끔찍한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주 우는 것은 그 사람들 자신이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슬픔을 이스라엘에게 표현하는 것만큼 그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6절, 이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8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백성의 애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1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실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으나 예레미야는 20절에서 백성이 말하기를 나를 붙 잡았다고 합니다. 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을 비웃으며,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나쁜 신학 때문에, 혹은 당신의 사악한 생활 방식 때문에 마땅한 것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로 인해 슬퍼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에게도 같은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9장 17절, 유다의 애통의 정도.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그 땅을 떠나 쫓겨났느니라 우리는 우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반역자라도 그들은 포로 생활 때문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는 그들과 함께 운다.

그는 전문적인 애도 여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우익인 우리의 관습이었습니다. 때때로 슬픔이나 애도의 시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이 일에 능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앙과 재앙이 유다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때가 왔습니다.

21절은 사망이 우리 창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거리의 아이들, 광장의 젊은이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거름처럼 들판에 떨어지며, 추수꾼 뒤에 떨어지는 곡식단 같으니라.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시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통.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슬픔, 애통함, 애통함, 상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그에 따라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는 또 다른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공포를 겪고 있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악인 못지않게 침략군의 영향을 받게 될 의인도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9장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성으로 들어가시며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과 자기를 아는 자들의 머리에 표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는 일종의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바룩, 예레미야, 에위드, 멜렉, 그리고 포로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호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모든 의로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의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은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들딸을 잃었거나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의로운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의인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의인 일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기능이자 역할은 이러한 기도가 유대인 포로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 자신에게도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확신은 그들의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학대한 악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시편 137편에 나오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과 79편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소와 여호와의 백성에게 행한 일을 살펴봅니다. 맏소사, 그들을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포로들 자신도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로서 30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에 따라,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포로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레미야 자신의 기도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20장에서 기도한 후 모든 역경을 통과하여 40장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선지자를 구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에 대한 마지막 예는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애가의 기도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책이 예레미야서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가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레미야의 고백의 메아리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무서운 용사이십니다.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포로들 자신에게 모델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해 지난 세 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모범적인 기도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고, 예레미야의 사역의 분투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봅니다.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반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레미야의 역할을 대표하는 기도들이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가르치는 Dr. Gary Yates입니다. 16회기, 예레미야서 11-20장, 예레미야의 고백, 3부, 하나님 백성의 비애와 예레미야서입니다.